



◆신라시대 부도비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작품인 대강혜화상백월보령탑비(국보 제8호).



◆금당과 총문사이 일직선상에 위치한 오층석탑(보물 제19호).



◇금당지 뒷면에 똑같은 모양의 3층석탑 3기가 놓여있는 성주사지. 사진=고영배 기자

보령 땅은 옥석이 뒤섞인 곳이다. 겉으로는 태연스레 아미산, 성주산 '산경무늬전돌' 같은 풍치를 만들지만, 그 내면에는 크고 작은 옥석이 뒤섞여 애도 풀고 속도 태운다. 보령의 웅천과 남포에서 오랫동안 이 땅 곳곳에 오석(烏石)과 벼루를 뒀다. 그래서 성주사의 창건 명이 오합사가 되었다. 보령의 토질이 여물고 차진 것은 오랜 세월 이 곳에 배인 민생들의 피와 땀이 만만치 않기 때문일 것이다. 마한의 영토에서 통일신라의 선풍이 깃들기까지, 백제의 오합사에서 임진왜란의 전쟁터까지, 무수한 말바람이 달렸을 것이고, 비바람이 성주산 출가지를 흔들었을 것이다.

부처 꽃은 잡초더미 속에서도 잘 자란다. 무너진 절터의 돌담 밑이나 외양간 두엄더미에서도 어김없이 자리를 잡고 꽃을 피운다. 부처 꽃은 울무가 되기도 한다. 순하고 어질어 배꽃과 등 시린 이 땅의 백성들에게 곡식은 아낀지언정 허기를 때우는 양식이 되고자 한다. 깨어진 틈새로 부처 꽃향기가 스며드는 성주사 터에서 모처럼 폐허가 주는 종만함을 만끽하는 것은 홀로 나선 답사 길이 해방감을 안겨주기 때문일 것이다.

부여의 대표적 폐사지인 정림사 터를 돌아 나오며 가슴 한 칸에 먼지처럼 쌓였던 아쉬움이 성주사 터에 이르자 어느새 풀 향기로 채워진다. 폐사지도 역시 절집의 흔적이므로 소음으로 뒤범벅된 도심보다는 물소리 한적한 산그늘이 제격이다. 성주관광이 폐광된 지 몇 년이 지난 탓인지 성주천 물길도 이전 땃물을 많이 뱉었다. 분진을 털어버린 출가지들도 싱그러움으로 몸단장을 하고 있었다. 세월이란 참으로 무상한 것이다. 한때는 바랑을 걸머진 수행자들이 줄을 잇던 골짜기가 또 다른 시절 인연을 만나서는 석탄을 실은 차들로 붐볐고, 이제는 다시 돌아온 토종 물고기 마냥 옛 것을 찾는 길손들의 호응이 가쁜 것이다. 성주사 터는 무려 천오백년의 세월을 이렇게 운회하며 성주산 대중을 맞이했다. 묵묵을 든 대중이든 곡괭이를 든 대중이든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세월 잡지 않았다.

백제 법왕이 이곳에 오합사를 세우고 전쟁에서 승진 병사들의 원혼을 달래려 한 것은 599년의

척박한 땅에 불법 꽃 피운 구산선문 聖住寺와 본찰

일이었다. 그 때야 말로 성주산 송화가루는 서해까지 흘러갔을 것이고, 백제의 왕실은 관솔불을 대낮처럼 밝힌 채 지성으로 유주무주 고흔들을 달렸을 것이다. 백제의 오합사가 지금의 성주사로 사명이 고쳐진 것은 통일신라의 대표적 고승인 무열국사(無染國師, 801~888)에 의해서이다. 무열국사는 무열왕의 8세손으로 그 시호는 낭해

당유학 신라 무열국사 선풍 크게 진작 1탑 1금당식 배치·전각규모 960여간 다른 절선 보기힘든 세쌍둥이 탑 눈길

(郎慧)이다. 그는 25년 간 당나라에 유학하고 돌아와 웅천(보령의 옛 지명)의 호족 김양의 권고로 이곳에 와 크게 선풍을 진작했다. 무열은 당시 사회의 모순을 직시한 몇 안 되는 성인 중의 성인인듯, 선지식이었다. 그리하여 이곳은 성인이 머무는 곳, 즉 성주사(聖住寺)로 불렸던 것이다. 그가 성주사에 자리를 잡고 '무설토론(無說吐論)'을 주창하자 그를 따르는 제자는 수천 여명에 달했고, 전각은 960여 간에 이르러 당시의 선문 가운데 가장 번성했으며, 곧 구산선문의 최대파인 성주선문을

이뤘다. 진성여왕 2년 88세로 무열이 입적하자 왕은 시호와 탑호를 내리고 부도비를 세웠다. 이 비가 절터 서북쪽 전각 안에 남아있는 '대강혜화상백월보광탑비(大康慧和尚白月寶光塔碑, 국보 제8호)'이다. 물론 이 부도비의 제질은 이곳 성주산이 주산지인 남포오석이다. 문장은 당대 최고의 문장가인

옛 절터라고 하여 모두 쓸쓸하고 허전한 것만은 아니다. 산경문전(山景峯), 보령 성주사지처럼 절도 없고, 인적도 없으나 외지 않고 마냥 편안한 곳도 있다. 어디선가 금방이라도 닭 울음소리가 들릴 듯 하고, 송림 사이로는 학의 날개 짓이 떠오를 듯 하다. 전돌에 희미하게나마 그 풍치를 남겨놓지 않았다면 두고두고 한이 되었을 백제 사람들의 심정이 헤아려지는 구도이다. 산언덕의 등성등성한 소나무 숲. 계곡을 따라 흘러가는 저녁노을. 빈 절터를 빼곡히 메운 토끼풀은 세월이

기사자를 찾아서
장지현의
잊혀진가람 탐험

보령 성주사지

무정하여 '산경무늬전돌'에 다 못 새겨 넣은 여백의 풍경이다. 반도 땅 곳곳이 척박하기는 하여도 끈질기게 불법을 씹터를 성지는 성지인가보다. 후미진 산자락, 굽이치는 강어귀, 그 어디를 뒤져도 부처 꽃 뿌리가 있거나 그 향기가 남아있다. 차령산맥 끝자락, 한 때는 무연탄광으로 석탄재 가루가 날리던 보령 땅 성주산 발치에도 옛 기암자리가 깨진 것처럼 놓여있는 것을 보면 이 곳 또한 웅골차게 불법을 꽃 피울 토양은 토양인가보다.

가람배치를 기본으로 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성주사지에는 중앙의 오층석탑(보물 제19호) 외에도 금당지 뒷편으로 똑같은 모양의 3기의 삼층탑이 나란히 서 있는데, 이는 다른 절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구성이다. 이처럼 세 쌍둥이 탑이 함께 서 있는 것은 달리 알려진 바가 없으나, 성주사지에 남해화상의 비문만 있지 정자 부도가 발견되지 않아 이 삼층석탑이 탑의 형태로 지어진 부도가 아닌가 하는 추측이 있기도 했다. 하지만 부도받이 법당 뒤편에 나란히 줄선 예가 없고, 부도비와도 멀리 떨어져 있어 설득력이 약해 보인다. 1974년에 밝혀진 '송악산 성주사 사적'에는 이 세탑이 정광(定光), 약사(藥師), 가섭(迦葉)의 세 여래 사리탑이라고 적혀 있어 그 신비감을 더해준다. 서탑과 중앙의 탑은 각각 보물 제47호와 제20호이고, 동탑은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26호 지정되어 있다.

발굴 이후 잘 정돈된 9천여 평의 대지에는 석물들과 몇 그루 배롱나무들이 각자 제 위치를 지키고 있다. 나무의 승상은 무엇인가. 제 위치를 지키는 것이다. 물의 승상은 무엇인가. 잘 닦지 않고 깨지지 않는 것이다. 나무와 물의 승상에 인연을 맺어 탑이 되고 비가 된 이 땅의 원력을 또한 무정들과 나란히 어깨동무하고 운회하길 강을 건너고 있는 것이다.

(시인·진각복지재단 사무처장) 다음은 익산 미륵사지편

성주사지 가는길

서울에서 서해 고속도로를 타고 대전에서 내려 보령시로 향하면 된다. 성주터널과 성주초등학교를 지나 성주천을 따라 3백여 m 올라가면 성주사 터 드넓은 골짜기 나온다. 부여에서는 40분 도로를 따라 보령 방향 25km 정도 달리면 석탄박물관이 나오고, 성주삼거리로 지나면 성주사지 팸말이 보인다.

| | | | | | |
|---|---|---|--|--|---|
| <p>사찰 (토굴)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신림동 ● 부지: 60평 ● 법당: 20평 ● 요사: 32평 ● 가액: 5억5천 <p>● 위치: 서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 1800평 ● 법당: 25평 ● 요사: 60평 ● 가액: 6억5천 <p>● 위치: 경북고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 200평 ● 법당: 36평 ● 요사: 170평 ● 가액: 4억2천 <p>※ 사찰(토굴)양도·양수 상담 환영</p> <p>서방불사 011)9851-5952</p> | <p>포교원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서울 송파구 마천동 2층의 2층 ● 평수: 40평 ●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 권리금: 절충(집기 일제) <p>011)356-6946</p> | <p>토굴(포교원)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송의 수행일정변화로 (토굴수행) 포교원 발을 분을 찾습니다 ● 법당 20평, 공양간 4방, 승방1, 중축 가능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 조건: 1원전인수 2책임운영 ● 주택 밀집지역, 교통 편리 ● 주차 공간. 대로변 주차장 2층 <p>011)9541-8538</p> | <p>사찰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 서당골 산과 계곡 접 ● 대지 60평, 건평 55평 ● 목재 현옥, 임법당, 단청필 ● 방6개, 화장실2, 욕실1, 주방2 ● 보증금 4천만원, 월500만원 ● 시내버스에서 내려서 도보 50m ● 교통 최고, 시내버스 중심 ● 생활도구 일체제공, 불만주시 <p>011)9357-5677</p> | <p>사찰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경남 창원읍 7분거리 ● 대지 150평 ● 법당(목조토기와) 11평 ● 요사채 25평 ● 교통편리, 도로 접 ● 가액: 1억 5천만원 <p>016)652-7547</p> | <p>사찰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부산 ● 대지: 400평 ● 임야: 2000평 ● 가액: 10억원 <p>※ 소개업자 일체 사절</p> <p>011)9207-9436</p> |
| <p>사찰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전북 남원시 소재 ● 부지: 약 600평(종교용지) ● 법당: 30평(목조 단청) ● 요사: 30평의 황토방 1동 ● 기 타: 석탑, 석등 ● 가 액: 4억 5천만원 ● 특징: 지방문화재(석불)있는 사찰로 기도도량으로 좋으며, 도심 인근에 있어 포교지로 좋습니다. <p>● 위치: 대구광역시 동구 소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당: 40평, 사무실 15평(지하) ● 가 액: 보증금 700만원(월 15만원) ● 시설비: 2천3백만원 ● 특징: 도심상가 밀집지역에 위치 하고 있는 시설A급 아주 좋은 포교당 <p>서울 ☎ 02)326-1060 대구 ☎ 053)782-5504 H·P 018)689-0455</p> <p>등진불사</p> | <p>포교당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경기 안양 4층 건물중 3층 ● 평수: 30평 ● 법당 18평, 상담실, 대가실, 주방, 방1 ● 보증금 1500만원, 월 65만원 ● 권리금: 2천5백만원(시설비 포함) <p>031)425-7987 011)754-7987</p> | <p>사찰터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경남 함천군 가회면 도터리 24-25번지, 황매산 입구 ● 도로옆 야산 ● 준농림지 850평 ● 가액: 2500만원 <p>054)335-5347</p> | <p>암자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경북 상주시 공성면 ● 대지: 106평 ● 법당 15평, 주방 7평 ● 요사채 20평 ● 가액: 4700만원 <p>054)534-7866</p> | <p>사찰(금)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소재 ● 부지 600평(평지), 대웅전 25평(삼포, 목조 단청), 요사채 50평 ● 노송이 어우러져 경관이 수려하고 시내인접, 지하수 풍부, 산신각, 용왕각 모셔져 있음 ● 가액: 1억 7천만원 <p>055)673-6996 011)832-0374</p> | <p>포교당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강북구 수유동 큰대로변 4층 건물중 3층 ● 평수: 37평 ● 시설: 법당, 산신각, 방, 주방, 창고 ●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2천만원 <p>016)288-5896 02)995-5896</p> |
| <p>사찰기도터(금)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충북 괴산 ● 지방도 지정 문화재 미륵마애불이 옆자리에 위치한 기도터입니다. 현재(종교부지) 건축허가 나왔습니다. 소납이 사정상 정리하려고 하오니 뜻이 있으신 분께서는 연락주시고 왕림하셔서 불사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p>011)742-5925 / 043)422-1666</p> | <p>사찰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경북 김천 부항면 마을 중점 ● 임법당 ● 한옥 목조 370평 ● 가액: 9천만원 <p>054)437-1857</p> | <p>포교원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경기 용인시 용인IC에서 5분거리 ● 3층 건물중 2층, 35평 ● 보증금 2천만원, 월 20만원 ● 시설비: 1천만원(시설 특 A급) <p>031)322-2646 011)9227-2646</p> | <p>포교당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경기 부천시 북부방면 변화원거리 ● 원미시장입구 47거리, 도로입구 아파트부근 ● 상가건물 5층 중 2층 목재, 30평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 권리금 1500만원(상담주 결정) ● 꼭 오실분만 전화주시요 <p>032)612-6917 016)368-6917</p> | <p>용품점(금)안내</p> <p>오산 불교 용품점</p> <p>독점상권</p> <p>급매 7천만원</p> <p>※ 서울 포교원 공양주 구함</p> <p>017)409-9599</p> | <p>포 교 당 안 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대로변 4층 건물중 3층 ● 평수: 30평 ● 보증금 2천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2천 5백만원 ● 시설: 법당, 부엌, 방, 2, 욕실 <p>011)9239-1369</p> |